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ChosunBiz (20 November 2014, Republic of Korea)

Page: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0/2014112002028.html

[기자수첩] 한국의 근로시간이 짧다는 商議

입력 : 2014.11.20 14:00



▲ 유호 기자

‘한국 직장인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받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아시아생산성기구의 발표 자료를 인용,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시아 주요 각 국의 노동시간과 생산성을 분석해 봤더니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민의 1 인당 생산성은 5 만 8700 달러인데 비해 싱가포르는 9 만 2000 달러, 홍콩은 9 만 200 달러, 대만은 7 만 4600 달러, 일본은 6 만 3300 달러였다.

대한상의는 “경제발전 경험과 문화가 비슷한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이 반드시 장시간 근로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의 부담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보고서의 근거가 제대로 된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는 ‘아시아 경쟁국의 연간 근로시간 비교’ 자료를 통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다섯 국가 가운데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 시간으로 홍콩(2344 시간)과 싱가포르(2287 시간)보다 짧았고 대만(2144 시간)과 일본(1706 시간) 보다는 길었다.

문제는 수치만 단순 비교한 것이라 국가별 경제 환경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긴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과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는 국가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강한 나라다. 제조업과 금융업은 산업구조상 차이가 크다.

제조업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만, 금융업은 거래상 변수로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24 시간 돌아간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수익을 내는 구조도 다르다. 제조업은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업해 제품을 만들지만, 금융산업은 한 명, 또는 팀 단위로 움직인다.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큰 일본, 대만만 놓고 보면 한국의 근로시간이 오히려 가장 길다.

또 싱가포르와 홍콩은 사실상 도시국가다. 이들과 비교하려면 서울과 도쿄 등 도시 대도시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싱가포르·홍콩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뭔가 석연찮다.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의 시기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대한상의회는 ‘아시아 경쟁국의 임금수준 비교’에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비교했는데 명목임금은 2012년 자료를 활용했지만, 실질임금은 2005년(월드샐러리즈)과 2009년(BBC) 자료를 인용했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비교하는 데 많게는 7년 이상 차이가 난다.

대한상의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뭘까. 지난 10월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대한상의회는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 반대에 부딪힌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급격히 줄 것을 우려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의회는 정년 60 세 의무화 입법과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 등 최근 고용 관련 제도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교육지책으로 이번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결론을 정해 놓고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고용은 사용자 입장에서선 비용이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다.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